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 중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The Role of Physical Education in Solving School Violence: An Investigation into Middle School Student's Awareness

이원찬, 구건모, 황성하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Won-Chan Lee(wonch2@hanmail.net), Geon-Mo Ku(ggeon@naver.com),
Sung-Ha Hwang(sungha8000@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중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단순무작위표집법을 활용하여 D광역시에 위치한 중학생 590명을 개방형 질문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중학생들은 체육수업이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형태로 분석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총 8개의 중범주와 4개의 대범주로 분석되었는데, 그것은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체육수업이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관련이 없다는 인식은 총 7개의 중범주와 4개의 대범주로 분석되었는데, 그것은 '경험적 요인', '구조적 요인', '인지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었다.

■ 중심어 : | 체육수업 | 학교폭력 | 중학생 | 인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physical education to solve school violence. In order to do this, we took a sample size of 590 middle school students from city D by using the simple random sampling, allowed them to answer open questions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school violence, and then conducted an inductive category analysis of the dat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towards physical education and school violence. First, the positiv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8 subcategories and 4 major categories(the soci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physic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contrary, the negativ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6 subcategories and 4 major categories(personal experience, structural elements, cognitive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 keyword : | Physical Education | School Violence | Middle School Students | Awareness |

I. 서론

현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걸림돌 요인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학교폭력 문제를 '4대 악'으로 간주하고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1].

접수일자 : 2014년 10월 22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03일
교신저자 : 황성하, e-mail : sungha8000@naver.com

2012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 5,53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율(12.0%)과 가해율(12.6%)은 전년도인 2011년의 피해율(18.3%), 가해율(15.7%)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학생 중 자살을 생각했다는 비율은 31.4%에서 44.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의 양적인 수치는 줄었는지 모르나 질적인 부분이 더 심각해졌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는 ‘뺑서틀’과 ‘계급짱’, 그리고 ‘찐따’와 같은 신조어가 만연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싸움을 전수하는 ‘파이터클럽’, ‘맛짱카페’ 등도 운영되고 있다[2]. 더 이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다[3].

이러한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4-12]에서부터 학교폭력 원인에 관한 연구[13-1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17-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22-2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학교폭력이 어떠한 기제와 동인에 의해 발생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가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가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체육수업시간의 확대 방안이다[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체육수업시수의 확대, 토요일스포츠 강사의 확대 배치,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스포츠강사 지원, 중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확대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자는 방안이다. 즉, 체육수업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체력강화, 긍정적 사고함양, 자아 존중감 및 집중력 향상, 불안 및 분노행동을 개선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육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이 해소될 것이라 ‘사회적 맥락’이 ‘실제적 효과’를 담보하고 있는지 밝

혀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단지 막연하게 ‘체육수업이 확대되면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공념(空念)’이 아닌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해소에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명확한 ‘개념(概念)’으로 그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체육수업의 실제적인 효과는 학생들로부터 체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대상도 실제로 체육수업 시수가 확대된 중학교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체육수업 역시 학교스포츠클럽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그동안 체육활동과 학교폭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폭력성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26-34]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 참가가 일탈의 위험요인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35-37]에서부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도덕적 판단 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38][39]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순기능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체육수업이 잘못된 철학과 교육방법에 의해 학생들에게 전이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0][41]. 국내의 연구에서도 현재의 학교폭력 프로그램은 심리 수준의 질문지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42].

따라서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 실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체육수업의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활동과 학교폭력은 이론적 근거와 심정적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기[43],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체육수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현장의 눈’으로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만 향후 바람직한 체육과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현장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중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그동안 연구자 중심으로 논의하던 체육수업과 학교폭력의 개연성을 학생중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효과적인 체육수업을 위해 필요한 미시적인 실천과제를 학교현장에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중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그리고 자료분석의 순으로 기술되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현재 D광역시에 재학중인 중학생이다. 이들을 모집단으로 단순무작위표집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590명을 개방형 질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광역시는 다섯 개의 구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에서 무작위로 중학교 한 개교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62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30부를 제외한 590명의 응답내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학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성별도 남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학년	성별	사례수(명)	퍼센트(%)
1학년	남	102	17.3
	여	90	15.3
2학년	남	100	16.9
	여	98	16.6
3학년	남	106	17.9
	여	94	15.9

2. 자료수집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수집 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다. 본 연구는 체육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기에 개방형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 학생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육수업이 확대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에는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학년 및 성별)과 체육수업과 학교폭력의 개연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신은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 체육시간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로 구성되었다. 개방형 질문문항은 체육수업 확대가 학교폭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내용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는 D광역시에 위치한 다섯 개의 중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하였다.

3. 자료분석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inductive category analysis)’을 통해 분석되었다. 귀납적 범주분석은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나 사례들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그 과정은 1)전사작업 2)전사자료 숙독 3)소개념 도출 4)대개념 도출 5)일치도 확인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개괄하자면, 우선 이들 자료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사되었다. 전사된 내용은 A4 19장에 전체적으로 종합되었고, 전사된 내용을 유사한 개념끼리 묶은 후, 개수와 퍼센트를 계산하였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연구자들은 스포츠사회학 박사 2인과 스포츠교육학박사 2인, 그리고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전사자료를 3회에 걸쳐 숙독하고 난 뒤, 개별

표 2.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 긍정적인 인식

소영역(원자료)	중영역	대영역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92) 다른 학생들과 협력이 강조되기에(82) 모둠별 수업으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기에(14) 체육시간을 통해 단합이 잘되기에(12) 교우관계가 개선되기에(20)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에(8)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기때(162) 친밀감이 향상되기 때문에(18)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10)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9) 소외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8)	사회성 함양 (214개/25.2%) 친구간의 이해 (207개/24.4%)	사회적 요인 (421개/49.6%)
학교와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129) 함께 웃을 수 있어서(18) 체육시간을 통해 심리적 피로회복(10)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짐(28) 성취감을 느낀(20) 우리 팀이 승리(성취)했을 때, 자랑스러움(7)	스트레스 해소 (157개/18.4%) 긍정적 정서유발 (55개/6.4%)	심리적 요인 (212개/25.0%)
체육시간에 신체육구를 발산시키기 때문에(53) 체육시간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37) 운동(신체활동)을 하고 나면, 분노(화남)가 사라짐(25) 활동량(운동량)이 많아서 피곤함(23) 활동량(운동량)이 많아지면, 일탈의 빈도가 적어짐(15)	신체활동성 (115개/13.5%) 활동량 (38개/4.5%)	신체적 요인 (153개/18.0%)
선생님이 대부분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16) 체육시간이 이루어지는 공간(운동장)에서는 일탈행동이 어렵기에(10)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10) 체육수업 자체가 좋아서(13) 체육수업에 집중하기 때문에(6) 체육교사의 훈화(지도) 때문에(4) 체육수업에 대한 의식 전환(4)	체육수업 공간 (36개/4.2%) 체육수업 몰입 (27개/3.2%)	환경적 요인 (63개/7.4%)

적으로 소개념(이 연구에서는 중범주)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거쳤다. 각자의 분석에 따라 도출된 중범주를 취합하여 일치·불일치 작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5개의 중범주로 확정되었다. 그 후 15개의 중범주는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뿐 아니라 귀납적 범주분석의 경험이 있는 스포츠사회학 박사 2인과 스포츠교육학 박사 2인, 그리고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과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일치여부를 조율한 후, 대범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범주 분류 작업이 완성된 이후 각각 요인에 대한 개수와 퍼센트가 계산되었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중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중학생들의 인식은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의견은 전

체 응답인원 590명 중 378명(64%)이었고, 반응 수는 849개였으며, 이는 총 8개의 중범주와 4개의 대범주로 분류되었다. 이와 반대로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의견은 212명(36%)으로 반응 수는 590개였으며, 이는 총 7개의 중범주와 4개의 대범주로 분류되었다.

총 378명(64%)의 학생이 체육수업을 하면 학교폭력이 해소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2학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학년은 발달심리학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시기이고, 실제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체육수업은 그러한 결정적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폭력성향을 감소 시키는데 적지 않은 중재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신체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거라 예상했던 여학생들의 인식(164명, 59%)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동기가 제공된다면,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소외현상을 최소화하고, 체육수업의 긍정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총 212명(36%)이 체

육수업과 학교폭력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체육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식 혹은 경향성을 이해하고, 문제의 근원을 실질적으로 분석해야만 체육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1.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 긍정적인 인식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개의 대범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사회적 요인’으로 전체 849개의 반응 중 총 421개(49.6%)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심리적 요인’으로 전체 반응 중 25%에 해당하는 212개를 차지하였고, 세 번째 높은 빈도는 ‘신체적 요인’으로 총 153개(18%)를 나타냈다. 마지막 요인은 ‘환경적 요인’이었고, 이는 전체 반응 중 7.4%를 차지하는 63개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각각의 대범주에 따른 중범주와 소범주의 영역들이 어떻게 범주화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논의이다.

1.1 사회적 요인: 체육수업을 통해 ‘소통의 장(場)’으로 진입하기

첫 번째 범주인 ‘사회적 요인(421개, 49.6%)’은 주로 체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인관계와 사회성, 그리고 사회적 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 요인에는 두 개의 중범주가 포함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성 함양’과 ‘친구간의 이해’로 분석되었다.

‘사회성 함양’은 25.2%에 해당하는 214개의 반응이 나타났다. 즉,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협동심, 단결력, 공동체 의식 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촉매제로서 체육수업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활동을 통해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고, 간접적으로 공격성을 감소시켜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44-46]. 두 번째 중범주인 ‘친구간의 이해’는 207개의 반응으로 전체 24.4%의 빈도수를 보였다. 이 요인에는 교실수업에서 친분을 쌓기 힘들었던 친구들과 체육활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학생의 체육활동이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47]. 따라서 체육수업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소통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업구조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이해 부족과 소통의 단절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체육수업은 ‘소통의 장(場)’으로서, 교우관계를 개선시키는 학교폭력 예방기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체육수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421개, 49.6%)’은 전체 반응수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빈도는 체육수업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체력강화, 긍정적 사고함양, 자기존중감, 집중력 향상, 불안 및 분노행동을 낮추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체육수업 확대 추진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심리적 요인: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촉매제로서 체육수업

두 번째 범주는 ‘심리적 요인(212개, 25.0%)’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와 ‘긍정적 정서유발’의 중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해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피로회복이 되니까, 기분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송예성[29]은 체육활동과 심리적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체육활동 집중, 체육활동 적극 참여, 체육활동 자발성은 심리적 폭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허연희[46]의 연구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자아가 형성될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이는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그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학교폭력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학생 뿐만 아니라 여학생에게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도 체육수업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을 체육수업의 적극적 참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심리적 만족감이 고려된 체육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3 신체적 요인: 신체적 욕구의 발현

세 번째 범주는 ‘신체적 요인(153개, 18.0%)’이다. 이 요인에는 체력소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욕구를 발산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져서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체육시간에 학생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이 수반되면, 학교폭력에 관계된 일탈행동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비행억제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시기인 중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은 움직임욕구의 실현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회가 되며,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기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운[28]은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내적·외적 욕구를 발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 본 연구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신체적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4 환경적 요인: 간접적인 감시기제로 작용되는 체육 공간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환경적 요인(63개, 7.4%)’이다. 이 요인은 두 개의 중범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운동장, 체육관과 같은 ‘공간성’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감소된다는 반응과 ‘체육수업 몰입’을 통해 학교폭력이 감소된다는 반응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는 일탈행동이 어렵기에,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응은 근본적으로 체육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이 감소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체육시간에 활용되는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감시기제로

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체육수업 몰입을 통해 학교폭력이 억제된다는 반응은 체육수업 자체가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의미가 있다는 황성하[4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과 수업내용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 부정적인 인식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반응은 4개의 대범주로 분석되었다.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경험적 요인’으로 590개의 전체 반응 중 총 217개(36.8%)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구조적 요인’으로 전체 반응 중 31.4%에 해당하는 185개를 차지하였고, 세 번째 높은 빈도는 ‘인지적 요인’으로 총 143개(24.2%)를 나타냈다. 마지막 요인은 ‘환경적 요인’이었고, 이는 전체 반응 중 7.6%를 차지하는 45개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각각의 대범주에 따른 중범주와 소범주의 영역들이 어떻게 범주화 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논의이다.

2.1 경험적 요인: 부정적 경험을 통해 (재)형성된 체육 수업 이미지

첫 번째 범주인 ‘경험적 요인(217개, 36.8%)’은 체육수업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행태는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경험론적인 인식이다. 이 요인에는 두 개의 중범주가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주관적 운동경험’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구성되었다. 원자료를 살펴보면, 체육을 못하면 욕먹고 놀림을 당함, 체육시간에 학교폭력의 계기가 되는 사례가 있음, 승부욕이 자극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이 발생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2009개정 체육교육과정’에서는 운동 ‘기능중심’에서 신체활동 ‘가치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

표 3.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 부정적인 인식

소영역(원자료)	중영역	대영역
체육(운동)을 못하면 욕먹고 놀림 당함(67) 체육시간에 학교폭력의 계기가 되는 사례가 있음(51) 체육시간에는 신체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27) 체육시간을 통해 승부욕이 자극(19) 어떠한 노력(체육수업이 확대가 되어도)을 해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음(42)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수업(교사의 지시)에 신경을 안 씀(11)	주관적 운동경험 (164개/27.8%) 효과에 대한 의구심 (53개/9.0%)	경험적 요인 (217개/36.8%)
체육수업에서 소외되기 때문에(90) 운동능력이 좋은 학생들끼리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47) 몸이 뚱뚱(허약)하다고 팀에서 제외됨(25) 왕따나 폭력을 당하는(가하는) 학생은 변화되기 어려움(13) 한 번 연루되면 계속적으로 관계가 되기(6) 학교폭력 피해(피해)학생은 체육수업을 많이 해도 변화가 없을 것임(4)	수업의 구조 (162개/27.5%) 낙인효과 (23개/3.9%)	구조적 요인 (185개/31.4%)
관련성이 없음(115) 체육수업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없음(18) 한 번도 체육수업과 학교폭력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없음(10)	인과관계 부족 (143개/24.2%)	인지적 요인 (143개/24.2%)
체육시간에는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 충분함(23) 체육시간에는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16) 세면장 혹은 탈의실에서 싸우는 경우가 빈번함(6)	교사의 감시망 (23개/3.9%) 정소의 폐쇄성 (22개/3.7%)	환경적 요인 (45개/7.6%)

한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육교사들은 과거의 기능중심수업모형과 이에 준하는 체육수업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끼리 팀을 조직하게 하여 체육수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운동을 잘하는 학생만 즐거운 체육시간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윤희[49]는 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소외 연구에서 청소년의 대부분이 체육을 좋아하지만 여학생은 체육에 대해 보통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여학생 혹은 신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체육교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체육시간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업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방법과 규칙이 변형된 뉴스포츠의 활용과 수준별로 성취기준을 달리는 평가방법의 개선도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구조적 요인: 그릇된 수업구조화의 문제로 발현된 주변화와 중심화

두 번째 범주인 ‘구조적 요인(185개, 31.4%)’은 ‘수업의 구조’와 ‘낙인효과’의 중범주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

들은 체육시간에 대부분 주변인으로 시간을 보낸다. 더욱이 운동을 잘하는 특정 몇몇 학생들에게만 팀 구성과 시설 사용이 편중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의 세심한 ‘수업 구조화’의 노력이 요구 된다. 예를 들어, 모둠을 편성할 때에도 주변으로 밀려난 학생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창·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인효과에 의해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양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기존에 왕따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체육수업이 그러한 낙인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체육수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2.3 인지적 요인: 효과에 대한 의구심

세 번째 범주인 ‘인지적 요인(143개, 24.2%)’은 ‘인과관계 부족’이라는 단일범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 관련이 없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정기범[3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참여가 학교폭력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체육활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적인 요인 또는 또래집단 요인들과 학교폭력의 개연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체육활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에 의한 중학생의 자기존중감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도 체육활동과 학교폭력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45][50]. 따라서 체육활동과 학교폭력간의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체육수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의구심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만 체육수업이 지니는 실천적 지식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2.4 환경적 요인: 과육현상을 일으키는 수업환경

마지막 범주인 '환경적 요인(45개, 7.6%)'은 '교사의 감시망'과 '장소의 폐쇄성' 중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체육수업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교사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자유로운 공간에서 스포츠의 속성인 경쟁심이 부정적으로 발휘될 경우, 학생들 간에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체육시간에는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 충분하기에, 체육시간에는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면장 혹은 탈의실에서 싸우는 경우가 빈번함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학교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효인[51]은 교우관계 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장춘옥[52]의 연구에서도 또래관계의 질이 낮은 경우, 학교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체육수업시간에 발휘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체육수업의 저해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중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단순무작위표집법을 활용하여 D광역시에 위치한 중학생 590명을 개방형 질문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중학생들은 체육수업이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형태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체육수업이 학교폭력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총 8개의 중범주와 4개의 대범주로 분석되었는데, 그것은 '사회적 요인(421개, 49.6%)', '심리적 요인(212개, 25.0%)', '신체적 요인(153개, 18.0%)', 그리고 '환경적 요인(63개, 7.4%)'이었다. 따라서 체육수업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중심' 수업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수업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개정 체육과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신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체육과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체육수업이 학교폭력을 해소하는데 관련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은 총 7개의 중범주와 4개의 대범주로 분석되었는데, 그것은 '경험적 요인(217개, 36.8%)', '구조적 요인(185개, 31.4%)', '인지적 요인(143개, 24.2%)', 그리고 환경적 요인(45개, 7.6%)이었다. 이는 체육수업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체육수업을 통해 형성되는 인성함양의 부적요인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시적인 실천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수업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체육수업의 실제적인 효과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중학교 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방법의 다양화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체육수업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질문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체육수업 역할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다양한 맥락에서 탐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내면화하는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설정하고, 심층면담을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체육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과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겨레신문, "학교폭력문제, '교육의 힘'으로 풀자", p.31, 2013.03.13.
- [2] 정대하, "맞짱 뜯 사람 모집 폭력놀이 10대 카페", 한겨레신문, p.14, 2012.03.15.
- [3] 황성하, 이창섭, "사회성 발달을 위한 팀빌딩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3호, pp.79-101, 2013.
- [4] 김준호,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사회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203-204, 2003.
- [5] 박상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6] 박효정, 이희연,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 참여율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pp.1-23, 2013.
- [7] 이상균,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가해행동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15권, pp.141-169, 2005.
- [8] 이종길,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및 대처 방안 연구", 한국윤리학회지, 제69권, pp.305-334, 2009.
- [9] 이창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유영현,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6, 2012.
- [11] 조운호,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55-179, 2013.
- [12] 최종진, 박근달, 구병두,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 한국행정사학회, 제32권, pp.217-240, 2013.
- [13] 권오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지, 제18권, pp.257-279, 2005.
- [14] 김창균, 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한국법학회지, 제29권, pp.173-198, 2010.
- [15] 문용린, 최지영, 백수현, 김영주,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피해자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pp.703-722, 2007.
- [16] 임인식, 초,중,고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7] 고성혜, "학교폭력현황-유형별 통계결과에 나타난 학교폭력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pp.14-23, 2003.
- [18] 락금주,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Ⅱ)", 한국법심리학회, '청소년, 법, 심리' 심포지움 자료집, pp.111-123, 2000.
- [19] 도기봉,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 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0] 문용린, 홍성훈, 박종효, 유춘자, 정은의, 이서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재활프로그램 개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 [21] 이민희, 이춘화, *학교 내 비폭력문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22] 송순자, *초등학교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법교육적 접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3] 신호재,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도덕적 공감의 이용 방안”, *한국초등도덕학회지*, 제44권, pp.215-240, 2014.
- [24] 정중익, 정상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pp.205-229, 2013.
- [2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2.02.06.
- [26] 권민혁, “학교 집단따돌림 예방 및 해결책으로서 스포츠의 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샵 자료집*, pp.33-46, 2012.
- [27] 김중형, 최정아, “체육수업이 초등학교 폭력행동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7-41, 2012.
- [28] 김재운, “학교 집단따돌림의 실상과 해결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샵 자료집*, pp.75-80, 2012.
- [29] 송예성,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0] 정기범, *고등학생의 체육활동참여가 학교폭력예방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1] 문윤제, “방과후 스포츠 활동 참여와 비참여 초등학생의 체력 및 인성 비교”,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57-167, 2008.
- [32] 유광욱, 원유병, “생활체육참여 정도 관련변인과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pp.97-113, 2008.
- [33] 이강우,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폭력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3호, pp.153-160, 2003.
- [34] 한정규, 허원석, “중학생의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63-75, 2013.
- [35] M. Cense and D. H. Brackenridge, “Temporal and developmental risk factors for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Vol.7, pp.61-79, 2001.
- [36] J. S. Garry and S. L. Morrissey, “Team sport participation and risk-taking behaviors among a biracial middle school population,” *Clinical Journal of Sport Medicine*, Vol.10, pp.185-190, 2000.
- [37] R. Simon, *Fair play: The ethics of sport(2n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2004.
- [38] J. Beller and S. Stoll, “Moral reasoning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and general student: An empirical study versus personal testimony,” *Pediatric Exercise Science*, Vol.7, pp.352-363, 1995.
- [39] F. Shields and Bredemeier, *Can Sports Build Character?* In D. Lapsley, C. power(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pp.120-139) Notre Dame, Indiana, 2005.
- [40] B. J. Cardinal, Z. Yan, and M. K. Cardinal, “Negative experiences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how much do they affect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later in lif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Vol.84, No.3, pp.49-53, 2013.
- [41] R. Haudenhuyse, M. Theeboom, and Z. Nols, “Sports-based interventions for socially

vulnerable youth: Towards well-defined interventions with easy-to-follow outcom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48, No.4, pp.471-484, 2013.

- [42] 이규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신체활동 기반 프로그램의 타당성 논증 및 운영 모델 개발", 체육과학연구, 제23권, 제4호, pp.923-946, 2012.
- [43] 권민혁, 정영린, 이용식, 허현미,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5호, pp.207-221, 2013.
- [44] 문기범, *남자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5] 이윤식, *중학생의 체육활동이 공격성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46] 허연희,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학교건강성에 대한 인식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7] 이제행, "중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참가에 따른 자기신체평가와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pp.49-59, 2005.
- [48] 황성하,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한 축구수업이 신체활동의 즐거움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45권, 제3호, pp.49-63, 2010.
- [49] 김윤희, "체육수업 소외 극복을 위한 체육수업 전략개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41-56, 2009.
- [50] 김동현,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에 의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변화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1] 이효인, *학교스트레스가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2] 장춘옥, *또래관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0.

저 자 소 개

이 원 찬(Won-Chan Lee)

정회원



- 2000년 8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수료
 - 1997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농구부 감독
 - 2001년 2월 ~ 현재 : 대전농구협회 기술이사
 - 2004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시간강사
 - 2009년 1월 ~ 현재 : 한국대학농구연맹 이사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체육행정, 스포츠마케팅

구 건 모(Geon-Mo Ku)

정회원



- 2010년 8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수료
 - 2003년 3월 ~ 현재 :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
- <관심분야> : 학교체육, 미디어, 일탈

황 성 하(Sung-Ha Hwang)

정회원



- 2010년 8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졸업(이학박사)
 - 2005년 9월 ~ 2011년 2월 : 대전도마중학교 교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전외삼중학교 교사
 - 2013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사회화, 미디어, 젠더